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중앙지방검찰청

공보담당자 이준호

전화 02-530-4780/ 팩스 02-536-5410

보도자료

2024. 10. 10.(목)

제 목

외국 공무원에 대한 국제뇌물 사건(2건) 수사결과
- 외국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국제뇌물공여 및 공여시도한
2건 6명, 검찰 직접수사하여 불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약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(부장검사 홍용화)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외국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·시도한 사건을 수사하여, 오늘(10. 10.) 국제뇌물방지법위반 등으로 2건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- 건설·감리 국내 선도업체 A社は 해외시장 개척 중 B國 장관에게 낙찰 대가로 미화 20만불 공여의사를 표시하고 최신 휴대전화기 1대를 공여하였고,
 - 국내 증견기업 C社は 소프트웨어 단독입찰 대가로 D國 국유기업 임원에게 미화 211만불의 뇌물을 약속하고, 그 중 158만불을 외국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하여 공여하였습니다.
- 사업수주를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계약 규범을 위반하여 국가간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엄단되어야 합니다.
-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해외진출 및 국제계약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.
-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, 앞으로도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부패 및 경제범죄 대응에 대한 국가신인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.

1

B國 장관에 대한 뇌물공여 · 공여의사표시

● 피고인(3명)

- ㄱ○○ (남, 60세, A社 상무)
- ㄴ○○ (여, 42세, 당시 A社 차장, 現 부장)
- A社 [양벌규정, 토목설계·감리 기업, 연 매출 5,700억 원('23. 12.)]

● 주요 공소사실 요지 [국제뇌물방지법위반]

- [검찰 직접수사] '19. 5.경 인천 소재 음식점에서 B國 □□부 장관에게 고속도로 건설 감리업체로 선정 청탁하며 미화 20만불(한화 2억 3,500만원 상당) 공여 의사표시 및 휴대전화(129만 원 상당) 공여

● 수사 경과

- '19. 11. 대검 수사첩보 당청 배당
- '20.~'24. 4. 첩보 관련 자료 수집(국제수사 등 국내·외 기관 협력)
- '24. 4.~9. A社 압수수색,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, 사건 관계인 조사 등 팀 수사 실시

2

D國 국유기업 임원에 대한 뇌물공여

● 피고인(3명)

- ㄷ○○ (남, 65세, 당시 C社 대표이사·창업주)
- ㄹ○○ (남, 57세, 당시 C社 전무, 現 부사장)
- C社 [양벌규정,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 1세대 기업, 연 매출 502억('20. 범행시)]

● 주요 공소사실 요지 [국제뇌물방지법위반, 배임중재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

- [검찰 직접수사] '18. 12.경 D國 E社에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면서 E社 재무담당 임원에게 단독입찰 대가로 211만불(약 23억) 지급 약속하고, '19. 3. 및 '20. 8.경 외국 페이지컴퍼니 계좌로 2회에 걸쳐 158만불(약 18억) 지급

※ E社は D國 △△지방 최초 디스플레이 제조 국유기업으로, D國 최고행정기관이 승인한 국가급 경제단지 내에 설립됨

- [서울세관 송치] '22. 7.경 위 D國 E社에 대한 실제 수출대금이 744만불임에도, 허위물품/용역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뇌물공여액까지 포함하여 955만불(744만불+211만불)로 부풀려 수출가격 조작 신고 [관세법위반]



● 수사 경과

- '23. 10. 서울세관, C社 외환검사 中 가격조작 혐의 포착
- '23. 11. 당청, 송치 前부터 국제수사 진행 및 다각적 자료 수집
- '24. 2. 서울세관, 관세법위반 사건 송치
- '24. 3.~9. 계좌 및 이메일 추적,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수집, C社 임직원 등 다수 관계인 조사

3 수사의 의의

1. 국제뇌물사건 엄정 수사로 국가신인도 提高

- 국제상거래 계약체결 등에 있어 '국가신인도(信認度)'는 전체 국가경제에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(경제 대외의존도 비율 80%¹⁾) 우리나라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요소임

1) 2021. 세계은행 발표자료 기준, 대외의존도=(수출금액+수입금액)/경상 GDP

- 국제뇌물사건 수사 실적 및 엄단 의지는 국가신인도를 점검하기 위한 국제적 판단지표인바, 국제사회는 수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의 경제 지위 (10위권)에 비추어 국제뇌물수사 실적·처벌수위가 낮음을 지적하여 왔음
 - ※ 2018. 12. OECD ‘뇌물방지작업반’은 국제뇌물협약 이행심사 후 “한국이 국제 뇌물방지법의 적용을 보다 확대하고, 법 집행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뇌물 사건을 적발하여 수사하여여 함”을 권고
- 검찰은 국제상거래에서 벌어지는 뇌물 수수 행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직접 수사함으로써 ▲ ‘해외시장개척’을 명목으로 한 국내 선도기업의 조직적 국제 비리를 밝혀내고(B國 사건),
 - ▲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하여 은밀히 뇌물을 수수하고 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구조적·계획적 비리 전모를 규명하였음(D國 사건)
 - ※ 특히 특사경(서울세관)과의 유기적 의사소통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국내·외에 산재하였던 증거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음
- 이번 수사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국제뇌물 수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확인하고 국가신인도를 제고하는 등 우려가 불식되기를 기대함

2. 기업 경영에서의 ‘글로벌 스탠더드’ 준수 계기

- 한편, 기업 스스로도 글로벌 경영환경에서의 ‘지속가능한 성장’을 위해 ‘ESG(Environment, Social, Governance)’ 경영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‘GRC(Governance Risk Compliance)’ 시스템* 구축이 중요함
 - * 조직 지배구조(Governance), 리스크(Risk), 윤리경영·준법활동(Compliance) 관리 전략
- 이번 수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뇌물 관련 국내 법령의 준수 뿐만 아니라, 해외사업 진출과정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인식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

4 향후 계획

- 앞으로도 검찰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상거래 뇌물수수 등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함으로써, 투명한 경쟁 환경 조성 및 부패범죄 대응에 대한 국가신인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☑